

교육특가

김제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달

김제농협(조합장 고성곤)은 지난 2일 김제농협 회의실에서 조합원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조합원 조합원 자녀 임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조합원 대학생 자녀 24명에게 총 2,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한 축산면 김준기 조합원은 "쌀값 폭락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협 장학금이 가계에 큰 보탬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고성곤 조합장은 "조합원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김제농협 조합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대학생 여러분은 모두 꿈을 이루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에 힘을 실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농협은 조합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 40명에 2천만원으로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547명의 조합원 자녀에게 3억8천7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와 조합원과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상동지구대, 수확철

농축산물 절도 예방 총력

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 상동 지구대는 늦은 수확철을 맞아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담당경찰관이 방문 농산물 보관 창고, 축사 등 방범진단과 더불어 마을 방송 등을 통해 농축산물 절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동 지구대 관내 구룡동과 내장 상동 농촌마을화관에 진출해 노인층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전 단지를 배부하고, 최근 범죄발생 사례 소개와 범죄예방 요령 등을 설명하며 자위 방법의식 교육을 당부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농민들이 애써 거둔 농산물의 도난을 예방하려고 찾아가는 예방 홍보활동과 더불어 취약시간대 집중 순찰과 목 검문을 통해 범죄 예방을 안전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교월동 - 광명시 하안1동

방문 화합 자매결연 추진

김제시 교월동주민센터에서는 지난 2일 김태한 동장과 조종욱 주민자치위원장 등 6명이 광명시 하안1동을 방문하여 상호화합과 교류확대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체결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지난 9월부터 진행되어온 두 지역의 자매결연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협약체결 실무방안 협의를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두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주민들간의 교류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이날 논의에서 교월동과 하안1동은 교월동 신청사 개청식이 열리는 14일에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기로 확정하였으며 이후 두 지역의 공동발전과 주민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김태한 동장은 "이번 자매결연이 교월동과 하안1동 두 지역 모두가 상생발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생기 시장은 9개 사업 498억원의 예산 반영을 위해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김생기 정읍시장 예산확보 총력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조성 등 9개 사업 498억원의 예산 반영 위해'

김생기 시장은 3일 국회를 방문하여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김시장은 정부 예산 추가 반영이 필요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조성' 등 9개 사업 498억원의 예산 반영을 위해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 시는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 건의된 사업에 대한 정부의 동의와 상임위 소위심사 및 의결을 필요로 하고 있어 국가예산의 추가 반영 및 증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시가 추가 확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9개 사업 중 국회 각 상임위에서 증액건의 되어 정부의 동의와 상임위 예산소위심사 및 의결을 통과하여 정부 예산 반영에 한층 유리해진 사업은 정읍경찰서 신축 이전(총사업비 350억원), 방사선 백신 특

수시설 확충사업(총사업비 150억원), 농축산물 미생물제품 인증지원(총사업비 30억원) 3개 사업이다.

또 국회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사업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조성(총사업비383억원)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증액건의 됐으나 정부의 동의 및 상임위 심사에서 증액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화학연구원 전북분원 건립(총사업비 280억원), 이문화 에너지 이용 축산 부산물의 활용 기술 개발(총사업비 170억원), 제3공구 매립시설 조성공사(총사업비 89.5억원), 국립 전북 기상 과학관 기상인 체험 교육관 시설 확충 사업(총사업비 84억원), 내장산 국립공원 탐방로 구름다리 조성(총사업비 20억원)으로 5개 사업이다.

김 시장은 이날 김현미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

장 미방위 수석전문위원 등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상임위 심사단계에서 증액의결된 사업과 심사 중인 4개 사업은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위원을 상대로 상임위증액 원안 반영을 적극 건의하여 추가 반영이 되도록 하고,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지 못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사업의 당위성과 기대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김 시장은 "남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일정 동안 국회 단계에서 정읍시 관련 사업의 추가·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의 공조 등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코믹 오페라 '버섯피자' 정읍시 예술회관에서 공연

이달 12일 오후 4시

정읍시가 깊어가고 있는 가을정취를 만끽할 공연을 마련했다.

오는 12일 오후 4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공연될 작품은 코 오페라 '버섯 피자'를 공연 우수작품 초청공연으로 마련한 버섯피자는 (사)호남오페라단에서 기획한 작품으로, 8세 이상 시민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버섯피자'는 현대 오페라의 대표적 작곡가인 미국 출신 시모어 바랍이 1988년에 완성한 작품이다. 19세기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만남과 사랑 배신, 질투, 증오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해프닝

을 그리고 있다.

코미디 형식의 연극적 요소와 이태리 발칸토 선율을 통해 오페라에 대한 흥미를 잘 구성한 수작으로 원작은 영어로 제작돼 있으며, 그 속에는 이태리적 작곡 기법과 아름답고 풍부한 선율이 넘치는 재미있는 희극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특히 니도아 트오텍스트라가 협연을 진행하여 더욱 수준 높고 아름다운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생기 시장은 "그간 발레와 국악 콘서트 관람과, 현대무용, 악극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공연해왔다"며 "이의 연장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원

하는 시민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한 공연인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것"을 당부했다.

(사)호남오페라단은 우리나라 창작 오페라 부분에서 8년 연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우수창작오페라 제작 단체로 선정 되는 등 한국 오페라 역사에서 창작오페라 부문의 독보적인 단체로 평가받고 있는 단체이다.

지난 2013년 창작오페라 '루갈다', 2015년 베르디 오페라 '춘희' 등을 공연한 바 있다.

공연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문화예술과(☎063.539-6413)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경찰 서림지구대 관내 공·폐가 안심치안 확보 총력



일동 작물 안전생산 관리 철저 당부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최근 잦은 비로 보리·밀 등 동계 작물 파종이 늦어짐에 따라 주 재배지역 및 체종 단지를 중심으로 안전 파종 지도에 나섰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맥류는 늦게 파종하면 추위에 가장 약한 시기에 월동하게 되어 겨울이 오기 전 어린 이삭이 생겨 얼어 죽기 쉬우므로 월동 전 잎이 5~6매 나올 수 있도록 한계 기인 이달 10일까지는 파종해야 한

다. 또 정부 보급종 미 소독 종자 및 자가 채종용 종자는 카보람분제를 고루 묻게 분의처리하고 파종시기가 늦어졌을 경우 종자량 및 인산 칼리비료를 20~30% 정도 늘려 뿌린다.

또한, 최근 비로 인한 기온 저하로 추위가 찾아옴에 따라 딸기나 토마토 등 시설하우스 내 환기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내부 습도가 높아져 역병과 잎곰팡이병, 잣빛곰팡이병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아져 수량이 감소하고 품

질이 떨어지므로 수시로 환기를 해줘야 한다.

이와 함께 겨울철에는 일조시간이 짧아 햇빛이 부족하므로 보온용 커튼이나 피복재는 해가 뜨는 즉시 걷어 주어 작물이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하우스 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가 지기 전에 덮어서 보온력을 높여줘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겨울철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토마토와 고추 등 과채류는 밤온도를 12℃ 이상, 상추 등 엽채류는 8℃ 이상 유지하고 습도는 가능한 60~70%의 최적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더드림 부안아카데미 올 10일 개최

부안군은 제3회 더드림 부안아카데미 강좌를 오는 10일 오후 2시 부안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부안군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유명 강사 방우정씨를 초청해 힐링 토크 콘서트라는 주제로 군민 행복을 위한 맞춤형 힐링 평생교육을 위해 올해 3번째로 진행되는 아카데미 강좌이다.

유명 방송인 김제동씨의 화술 스승으로 유명한 방우정 강사는 레크리에

이션 지도자, MC 전문교육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명품 스피치 강연 활동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벤트 MC계의 살아있는 전설 방우정 강사의 아카데미 강좌가 개최되니 많은 군민들이 참석해 웃음으로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웃음·공정의 힘과 에너지를 잔뜩 받아들 수 있는 값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평생학습한마당 개최

내일까지 3대 테마형 학습과정으로 진행

평생학습도시 김제시에서는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제7회 김제시 평생학습한마당'을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김제 시민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한다.

"배움 나눔학습으로, 더 행복한 김제!!"라는 주제로 12개 평생교육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학습 체험과 무대공연발표회 등 3대 테마형 학습과정으로 구성되어 그간의 학습성과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배움의 장으로 펼쳐진다.

다양한 체험이 진행될 배움마당에서는 60여 가지 체험과 전북권 평생학습도시 이색체험, 추억의 교실과 평생학습관·여성화관 수강생 작품발표회 등 다채롭게 펼쳐지며, 발표마당에서는 학습동아리, 주민자치센터, 여성화관 수강생 발표회 등 68여 팀의 공연발표가 이어진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 밖에도 어울림마당에서는 성인문해교육 학습자를 위한 한글글자본, 성인문해 거리시화전, 4D 무비카 등 다채로운 학습행사로 꾸며져 있다.

평생학습으로 준비하는 100세 시대 행복한 미래살계를 위해 준비한 이번 행사는 학습 성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배움을 나누는 학습기부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식 김제시장은 평생학습도시 김제시의 위상을 높이고 평생학습의 주인공인 시민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제7회 김제시 평생학습한마당'에 김제시의 평생학습이 다 모여 배움을 나누는 학습의 장인 만큼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발전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 학습동참을 권유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KTX 경제권 개발 어떻게"

정읍시와 토지주택공 관계자 등 13명 정책간담회

정읍시는 지난 2일 시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와 시 관계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복합환승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관계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 KTX 경제권 개발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정읍KTX 경제권의 개발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검토하고 정읍역세권 개발의 잠재력 진단 및 사업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발표 자료에서 철도혁신의 미래와 KTX 경제권의 변화, 개발 방향에 대한 정부정책과 KTX 경제권 개발 사업의 지원 컨설팅 방안과 역세권 개발 가이드 라인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시는 정읍역 앞 지중화 사업 등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설명했다. 특히 시는 2017년 계획하고 있는 정읍역세권 개발 사업 계획 수립 용역

과 관련 KTX 정읍역 전편의 기성 시가지와 후편의 미 개발지(신역세권)를 구분한 대상지 특성에 적합하고 차별화된 개발 방안 KTX 정읍역 역세권을 정읍시의 핵심 거점으로 개발 육성하기 위한 전략, 역세권 개발의 파급 효과를 구도심권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 역세권 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컨설팅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 그룹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관계자는 서류 진단과 현장 조사를 통해 컨설팅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김생기 시장은 KTX 정읍역세권 개발과 관련 "지역 발전의 원동력 구축, 지역 경쟁력 확보, 도시 발전을 선도하는 신 거점지역 육성이라는 도시개발의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이 역세권 개발역에 반영·수립될 수 있도록 하라"고 관계 부서에 당부한 바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